

박인환 문학의 미국에 대한 이중적 태도 연구

- 1950년대 시와 산문을 중심으로 -

주영중*

Ⅱ 차례 Ⅱ

- I. 서론
- II. 산문 속의 혹은 시 속의 아메리카
- III. 대중성과 예술성의 경계와 접점

【국문초록】

이 글은 박인환의 시와 산문 속에 드러난 미국에 대한 이중적 태도에 주목하여, 그러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배경과 원인,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의 문학 속에서 미국이란 타자적 존재는 그의 문학적 정체성과 자아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심적인 대상 중 하나이다. 박인환 문학의 미국에 대한 이중적 인식과 표현을 살펴보는 일은 단순히 미국에 대한 그의 태도를 읽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세계관과 문학관 내지는 예술관을 읽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1950년대 미국 기행문과 영화 비평 속에서 박인환은 미국의 선진적 문명, 체제 등에 대해 호의와 선망의 시선을 보낸다. 미국 기행 관련 시편이 욕망과 환상, 그리고 소외로 점철된 미국 문명의 불모성에 집중되어 있다면, 미국 관련 산문은 선망과 매혹의 감정을 포함한 자기 환멸의 지점을 드러내면서 일정한 차이를 보여준다. 박인환의 산문이 지닌 대중적 글쓰기의 방향과 시가 지닌 예술적 글쓰기의 방향은 전혀 다른 지점에서 형성되고 서로 독립적으로 서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두 글쓰기는 서로를 의식하는 가운데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박인환은 이러한 두 방향의 글쓰기의 분열적 징후와 해후의 가능성을 시 속에 남겨놓았다.

* 대구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창조융합학부 조교수.

미국이라는 타자를 통해 한국의 후진적 현실과 한국인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재확인 하면서 혹은 미국이란 타자에 이끌리고 욕망하는 자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박인환은 방향감을 상실한 채 자기 환멸의 감정에 시달린다. 이러한 내면 풍경이 시를 통해 발현되는 가운데, 그는 통속성과 대중성의 문제가 현대의 속성임을 의식·무의식적으로 깨닫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본질적 시에 대한 박인환의 믿음이 균열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과 동시에 현대시의 분열적 징후를 읽을 수 있다. 그것은 전통과 새로움, 대중성과 예술성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던 혹은 그 경계와 접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1950년대 지식인의 자화상이면서, 당대의 문학적 고민을 그대로 드러내는 정표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박인환, 미국 기행, 이중성, 대중성, 통속성, 비판의식, 자아 정체성, 환상.

I. 서론

이 글은 박인환 문학이 지닌 미국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박인환의 문학 속에서 미국이란 타자적 존재는 그의 문학적 정체성과 자아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심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다.¹⁾ 그러므로 박인환 문학의 미국에 대한 이중적 인식과 표현을 살펴보는 일은 단순히 미국에 대한 그의 태도를 읽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세계관과 문학관 내지는 예술관을 읽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겠다. 이 글은 박인환의 미국 관련 텍스트들을 분석하고 그 속에 내재한 박인환의 이중적이고 균열적인 내면풍경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에 대한 그의 인식이 시기에

1) 박인환의 문학 텍스트에는 미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노출되어 있다. 해방기 미국 관련 시편은 물론 1950년대 미국 기행 관련 시편과 산문들, 영화 평론 등이 그에 해당된다.

따라 또는 장르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시기적으로 볼 때, 미국에 대한 박인환의 입장은 해방기를 거쳐 1950년대에 이르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해방기 시절 미국이 박인환에게 제국주의적인 존재로 비춰진다면, 1950년대 이후 미국은 선망과 부정이라는 이중의 얼굴을 한 존재로 각인된다. 이러한 시선 차이는 시대 환경의 변화는 물론 상이한 시대인식 혹은 예술관에 의해 생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우리는 장르-시와 산문-의 차이에 따라 미국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1950년대 산문이 주로 미국에 대한 긍정과 선망의 태도를 드러낸다면, 시는 비판적 성찰과 선망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드러낸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문제는 미국 영화를 대하는 박인환의 태도 변화이다. 해방기 미국 영화에 대한 평은 긍정보다는 비판 쪽에 가 있었다. 그때의 판단 기준은 전통과 예술성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런데 1950년대가 되면서 이러한 판단 기준은 조금씩 변화된다. 전통보다는 새로움의 차원을 강조하고, 본질로서의 예술성보다는 대중성을 포함한 개념으로서의 예술성을 강조하는 비평 경향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박인환 문학에서의 미국 혹은 미국 영화에 대한 태도 변화는 다소 복합적이고도 다층적인 의미맥락을 거느린다.

미국에 대한 박인환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중심이 시와 산문-영화 평론을 포함한- 중 어느 쪽에 가 있는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입장을 드러낸다.

박인환의 미국 관련 시편이 비판의식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선망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연구들²⁾은 대개 박인환이 미국이라는 타자

2) 한명희, 「박인환 시 『아메리카 시초』에 대하여」, 『어문학』 제85집, 한국어문학회, 2004. 9, pp.473-485.; 김은철, 「박인환 시의 현실과 시적 대응」, 『한민족어문학』 제47

를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매개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물론 박인환의 민족에 대한 인식이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가³⁾ 또는 소극적이고 소재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가⁴⁾ 하는 문제는 연구자에 따라 그 견해가 갈리기도 한다. 한편 미국이라는 타자와 대면하면서 가졌던 박인환의 내면을 존재론적 불안으로 읽어내는 시각은 1950년대 박인환이 처했던 내면 풍경을 잘 보여준다. 미국과 한국, 그 어느 쪽도 긍정할 수 없는 시인의 불안을 방향성의 상실로 인한 불안⁵⁾으로 볼 것인가, 또는 보이지 않고 규정할 수 없는 정동으로서의 불안과 자유를 향한 주체의 욕망과 관계하는 한에서의 불안⁶⁾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박인환 문학 연구를 풀어나가는 핵심적인 문제로, 앞으로 이 지점에 대한 논의가 더 진척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인환의 미국 관련 산문에 대한 연구는 대개 박인환이 미국의 현 대성에서 한국 사회와 문화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있다⁷⁾고 보거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미국이라는 타자를 내면화하면서 자기정체성을 찾게 된다⁸⁾고 보는 시각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대개 해방기 시절

집, 한민족어문학회, 2005. 12, pp.280·306.; 김정남, 「박인환 시의 모더니티와 시사적 의미」, 『어문론집』 제48집, 중앙어문학회, 2011. 11, pp.346-348.

3) 한명희, 위의 글, pp.474-484. 한명희는 박인환의 시가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초라함이라는 이중적 자의식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4) 김은철, 위의 글, p.280.

5) 방민호, 「박인환 산문에 나타난 미국」,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9집, 한국현대문학회, 2006. 6, pp.435-436.

6) 강계숙, 「불안의 정동, 진리, 시대성: 박인환 시의 새로운 이해」, 『현대문학의 연구』 제51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10, pp.457-463.

7) 방민호, 위의 글, pp.19-20.

8) 박연희, 「박인환의 미국 서부 기행과 아메리카니즘」, 『한국어문학연구』 제59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2. 08, pp.158-164.; 박연희, 「박인환과 영화」, 『한국문학연구』 45집,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2013. 12, p.326.

가졌던 미국에 대한 박인환의 비판적 태도가 1950년대 이후에는, 미국이라는 타자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다는 사실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미국과 관련된 박인환의 시와 산문을 비교한 다음과 같은 논의는 흥미로운 논의거리를 제공한다. 시에서는 비판과 우울의 정서가, 산문에는 선망의 정서가 두드러진다고 보는 견해⁹⁾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박인환의 미국 관련 텍스트에서의 시정신과 산문정신의 차이를 적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흥미롭지만, 그에 대한 해석이 일면 자의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논의에서 더 나아가 새롭게 진전되어야 할 논의의 방향은 박인환의 미국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과연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밝히는 일일 것이다. 가령 미국이란 존재가 그에게 던져주었던 예술성과 대중성에 대한 근원적 질문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자기 환멸을 포함한 자기정체성 문제를 드러내는 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박인환 문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지점을 포착하게 될 것이다.

9) 오문석, 『박인환의 산문정신』, 『박인환 깊이 읽기』, 맹문재 편, 2006, pp.75-78. 박인환의 산문들 속에서 비판적 태도가 발견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박인환의 산문이 항상 관용과 연결된다고 말한 오문석의 지적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박인환의 시가 비판과 선망 등 양가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박인환의 시정신이 비판과 부정의 정신으로만 일관되어 있다고 보는 오문석의 견해 또한 재고를 요한다.

Ⅱ. 산문 속의 혹은 시 속의 아메리카

1. 선진 문명으로서의 아메리카: 대중적 텍스트로서의 기행문

미국 체험을 바탕으로 한 박인환의 기행문은 대체로 미국의 웅대한 자연, 자유와 질서가 확립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의 위상, 여유와 즐거움을 바탕으로 한 미국인의 생활 태도, 청년기에 비유되는 미국의 활달함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미국에 대한 인상기라 할 수 있는 기행문들에서 박인환은 미국의 발달된 정치 제도, 미국인의 생활 태도 등에 대해 호의와 선망의 시선을 보낸다.

당대의 분위기가 미국을 선망과 매혹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¹⁰⁾, 당대의 다양한 매체들이 미국을 부정과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매혹과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현상이 크게 이상할 것은 없다.¹¹⁾ 이들은 미국을 우리가 뒤따라야 할 표본으로 제시한다. 미국 기행 후에 쓰인 글들의 대다수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듯이¹²⁾, 박인환의 기행문 또한 그러한 시대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0) 이선미, 『“미국”을 소비하는 대도시와 미국영화』, 『상허학보』 18집, 상허학회, 2006. 10, pp.76-77.

11) “그 당시 대중문화 담론에는 미국을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역할모델이나, 억압된 자아의 해방 기제로서 과장되게 표상하고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박연희, 『박인환의 미국 서부 기행과 아메리카니즘』, p.162).

12) 임종명은 당대의 미국 기행기들이 미국을 한민족과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타자적인 거울로, 문명이라는 단일한 척도에 의해 미국은 선진-현대-세계중심-도시로, 한국은 후진-고대-세계변방-시골로 배치한다고 보았다. 선진과 현대, 문명의 척도이면서 모델, 더 이상 특정 국가가 아니고 세계 자체가 된다(임종명,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 미국기행문의 미국 표상과 대한민족의 구성』, 『사총』 67, 역사학연구회, 2008. 9, pp.88-93).

삼림

우선 놀라운 것은 산이 푸르다. 우리나라와 같이 붉은 산만 보던 나로서는 무서울 정도로 산의 수목들이 무성한 데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중략) 워싱턴 주립 공원의 삼림의 아름다운 우아한 모습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것이다.(중략) 창해와 같은 삼림은 아메리카의 웅대성을 말하는 동시 그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질서

민주주의는 자유와 질서의 발달을 의미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렇다고 하여 과연 어느 정도의 자유가 아메리카에 보장되어 있는지 단기간의 견문으로써 나는 알 수 없으나, 그 질서의 확립에는 확실히 동의하는 바이다.

정신적 연령

그들은 새 지식이나 문학 또는 철학에 정신을 돌리지 않아도 인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대와 생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메리카에는 많은 선량한 사람이 좋은 나라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살고 있으니, 그러기 위한 첫걸음으로 서로 즐거운 개인과 가정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19일간의 아메리카」(『조선일보』, 1955. 5. 13~17)

미국 기행 후의 생각과 느낌을 풀어낸 「19일간의 아메리카」라는 글에서, 박인환은 미국을 비교적 호의적으로 읽어낸다. 삼림이 지닌 웅대성을 민족성으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하기도 하고, 여유로운 생활의 기반이 자유와 질서로 구축된 민주주의 국가체제에 있음을 역설하기도 한다. 또한 박인환은 풍요롭고도 안정된 생활로 인해 미국인들이 굳이 새로운 지식, 문학 또는 철학에 정신을 쏟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미국에 대한 박인환의 긍정과 전망의 시선은 당대 대중매체의 전략과 맞아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박인환의 내면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¹³⁾ 박인환의 산문은 이와 같이 당대의 미국에 대한 선망과 호의의 담론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이는 분명 욕망과 환상, 문명의 불모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미국 기행 관련 시편들과는 상당한 거리를 보여준다.

아메리카에는 전통이 없다, 또는 경박하다, 역시 우리들을 매혹시키는 곳은 서구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신적인 면에서만 하는 말이지 그 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실상 우리들의 개념으로서의 전통이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동양 사람인 우리들은 하루 이틀에 서구적인 전통이 없다는 것을 곧 아메리카에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략) 지금 회고하면 아메리카는 야욕에 불탄 이단자의 나라다. 구라파가 잠자고 그들이 발전에의 꿈을 버렸을 적에 아메리카의 사람들은 그곳을 벗어나 새 나라를 만들었고, 그들은 꺾지 못할 청춘의 힘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중략) 결국 서구를 노년기로 본다면 아메리카는 청년기이며, 청년이 가지는 자랑스러운 힘으로써 생활하며 사고하며 행동하는 것처럼 나에게 보였다. (중략) 이것을 볼 때 우리의 빈약성은 고사하고 아메리카가 가진 놀라운 힘에 먼저 경탄하여 버렸다.

- 『세계의 인상-30인의 기행문』(진문사, 1956. 5)

박인환은 오랜 전통이 없다는 사실이 미국의 결합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던 해방기와는 다르게 1950년대에 들어서면 미국을 전통의 유무와 상관없이 세계 최고의 문명국으로 극찬한다. 유구한 전통을 가진 유럽이 퇴락하고, 오히려 그런 전통이 없음에도 미국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

13) 미국에서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황홀한 꿈의 나라로, 다시 한 번 오고 싶어하는 나라로 표상되기에 이른다.

“아침 여덟 시의 태양은 그 거리의 고층 건물을 내리찍고 있고, 우리들은 추위도 모르고 황홀히 그곳을 바라다봅니다. 해변가에 꿈에 나타나는 집처럼 아름다운 미국의 농촌이 보입니다. (중략) 그 웅장하고 우미한 다리의 모습은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박인환, 『정숙이』, 『세월이 가면』, 근역서재, 1982).

는 지점에서 우리는 전통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변화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이후 논의할 미국 영화 평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어쨌든 박인환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미국 자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물론 세계관 혹은 예술관의 변화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는 또한 오락성을 부정하고 전통과 예술성을 지닌 예술만이 최고의 예술이라 판단하던 과거와 달리, 1950년대가 되면 오락성이 예술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미국에 대한 긍정과 선망의 시선이 시에서는 급격하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 원인을 우리는 기행문이라는 글의 성격, 당대 미국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 분위기에 편승해 미국을 최고의 문명국 지위에 올려놓던 매체들의 태도와 기획 등의 문제들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미국은 분명 후진적인 한국 현실에 대비되어 세계 최고 문명국으로서의 위상을 지닌 국가였지만, 당대 미국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태도가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환상 쪽으로 지나치게 경사되어 있었다는 점은 비판을 요한다. 박인환에게 대중적 글쓰기로서의 기행문 쓰기는 예술적 혹은 시적 글쓰기와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형성되고 독립적으로 서 있는 듯 보인다. 박인환은 이 두 가지 방향의 글쓰기를 내적으로 분리해서 각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중 혹은 대중성’이라는 코드가 어느 정도 ‘예술성’과 분리되어 용인될 수 있었던 것은 다음에 논의할 ‘영화’에 대한 인식 태도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당대 영화는 새로운 예술로 자리를 잡으면서 예술에 대한 인식과 판도를 변화시키게 하는 장르로서 기능하였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기존 예술이 대중매체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영화에서 예술의 새로운 양식과 형식들을 취할 수 있다는 사고를 낳게 되고, 예술이 이미 대중성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다는 사고를 낳게 된다. 이는 영화 또는 대중적 글쓰기에 대한

박인환의 생각이 변화되는 지점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2. ‘대중’ ‘예술’ 생산자로서의 아메리카: 대중성/예술성의 경계 텍스트로서의 영화

해방기 시절 박인환에게 전통과 예술성의 유무는 영화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준거로 작용한다. 1948년에 발표한 『아메리카 영화 시론』(『신천지』, 1948. 1)에서 박인환은 미국 영화가 “전통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아메리카의 이면은 더욱 비참한 것”이라 진단한다. 또한 미국 영화가 “예술성보다 오락성”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미국 영화가 예술성보다는 산업화 시대에 맞는 흥행을 중시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오락성 위주의 영화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민족으로 구성된 짧은 역사만큼이나 전통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들어 미국 영화의 문제점을 부각시킨다. 이와 같이 해방기의 박인환이 미국 영화를 보는 시각은 일종의 결함의 차원이었다. 그러던 것이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영화를 바라보는 박인환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¹⁴⁾ 미국 영화의 전통 부재와 오락성 중시 경향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보이던 박인환은 이후 미국 영화를 새로움과 오락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예술로 읽어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미국 기행에 따른 태도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예술을 대하는 그의 태도 또한 변화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영화가 대중성과 예술성이라는 경계에 서 있음을 자각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14) 박연희는 1950년대 이후 박인환에게 미국영화는 유럽 중심의 서구 전통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신과 문화를 표현한 비판이 아닌 참조의 대상이 되었으며 현대적 감각을 표현하는 대상으로 격상되었다고 보았다(박연희, 『박인환과 영화』, 『한국문학연구』 45집,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2013. 12, p.320).

아메리카는 350년의 새로움을 가질망정 더한층 복잡하다. 여기에 오늘의 아메리카의 비극이 있다. 콜로니의 세계의 전형적인 절망이 있다. 아메리카가 신세계였으므로 기다릴 만한 전통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아메리카 영화의 이면은 더욱 비참한 것이다. (중략) 꿈이나 로맨스라는 것은 아메리카 영화의 특징이 아닐 수 없다. 요는 꿈의 종류와 그 수법이겠으나 영화를 오락으로서 볼 때에는 건전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꿈을 그린다는 것이 가장 충실한 사명이라 하겠다. 그러나 천편일률의 로맨스, 결말적인 해피엔드에선 거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꿈이 그려 있다 할지라도 몇 번 지나면 관객은 완전히 권태할 것이다.

- 『아메리카 영화 시론』(『신천지』, 1948. 1)

미국인의 전통에 대한 욕구는 오늘에 와서 완전히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중략) 『로마의 휴일』이나 『내가 마지막 본 파리』는 이러한 전통에 대한 자신과 우월감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략) 과거라는 것이 회상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마치 파리와 로마는 미국인이 그 쾌활한 기질로 새로운 자기의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다. (중략) 구라파에 한없는 매혹과 잊지 못할 회상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미국인에게는 이제 오랜 전통과는 다른 새로운 우월 감정이 앞서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두 작품은 어디까지나 미국인이 아니면 제작할 수 없는 일이며 오랜 전통에서 새로운 자기의 예술을 찾고 있는 미국의 모습인 것이다.

- 『서구와 미국 영화』(『조선일보』, 1955. 10. 9~11)

각각의 인용문은 해방기와 1950년대에 쓴 박인환의 미국 영화 평이다. 이 두 글 사이에서 우리는 전통과 새로움의 문제, 그리고 오락성과 새로운 해석 가능성으로서의 오락성 변주의 문제-『쾌활의 기질』-를 만나게 된다. 해방기 글을 보면 미국 영화가 새로움을 가질망정 전통이 부재하며, ‘건전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꿈과 천편일률의 로맨스’를 중심으로 하는 오락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미국 영화가 지닌 문화적 결핍의 지점을 짚어낸다. 이에 반해 1950년대에 오면 미국 영화가 구라파의 전통에 대한 열

등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우월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상태로 변화하며, ‘쾌활의 기질’로서 새로운 예술 세계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이는 영화와 예술을 바라보는 박인환의 가치 중심이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1950년대의 박인환은 오히려 전통을 ‘노쇠함’으로, 새로움을 ‘청년의 표상’으로 읽어낼 뿐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었던 오락성을 ‘쾌활한 기질’로 읽어내면서 과거와 달라진 입장을 보여준다. 전통의 무거움을 가볍게 넘어설 수 있는 ‘쾌활한 기질’ 속에서 그는 미국 영화의 새로운 예술로서의 가능성을 읽어냈던 것이다. “오락 이상의 것”으로서의 예술을 강조하던 해방기 『아메리카 영화 시론』의 믿음 체계가 1950년대에 오면 꿈과 로맨스, 그리고 오락적 요소를 가미한 예술을 강조하는 쪽으로 옮겨가게 되었던 셈이다. 우리는 미국 영화에 대한 태도 변화가 그의 예술관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

미국 영화에 대한 귀하의 비판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며 관객의 의식을 자본주의 문명으로 끌고 가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므로 예술의 진실성이란 없다고 본다. 콜로니 문화의 특수면인지 몰라도 비지적(非知的)이고 흥행 가치에 너무 중점을 두고 있다.

- 『아메리카 영화에 대하여(설문)』(『신천지』, 1948. 1)

매스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영화의 처지는 실로 의의 깊은 바가 있으며 외국에서의 현대 문화 및 예술의 분야에 있어서 영화의 발전은 참으로 경이할 바가 있다. 아메리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불란서, 영국, 이태리의 전후의 작품은 오늘날까지 찾아보지 못한 예술적인 향상을 하였다. 그리하여 우수한 작품은 국내에서 대중의 지적 양식과 아울러 오락을 주었을 뿐 아니라 널리 해외에까지 수출되어 외화 획득을 하는 한편 그 나라의 문화 선전에도 큰 도움을 거두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사례를 보아도 확연히 나타난 일이다.

- 『한국 영화의 현재와 미래』(『신천지』, 1954. 5)

해방기와 1950년대에 발표한 또 다른 영화 관련 글을 살펴보자. 눈에 띄는 것은 영화를 소비하는 대상이 ‘관객’에서 ‘대중’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예술의 진실성 문제에 대한 시선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영화의 소비자로 지칭되던 ‘관객’이 ‘대중’으로 그 명칭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어휘 변화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을 내포한다. 그것은 오히려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의 중심이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해방기의 ‘관객’이 수동적인 존재로 부각된다면, 1950년대의 ‘대중’은 미묘한 지점에서 능동성을 가진 존재로 부상한다. 또한 흥행 가치를 넘어서는 지적인 예술로서의 영화와 그 영화의 진실성을 강조하던 태도는 1950년대에 이르러 지적 양식과 오락성을 포괄하는 양식으로서의 영화와 그 예술성을 강조하는 태도로 변화된다. ‘오락성보다 예술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할 때의 ‘오락성’이 예술성 바깥에 놓인다고 한다면, ‘우수한 예술 작품이 대중에게 지적 양식과 오락을 줄 수 있다’고 말할 때의 ‘오락성’은 예술성 안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획득한다. 특히 ‘대중’ ‘매체’로서의 영화가 지니는 속성과 그 의미를 강조하는 순간, 이때의 영화는 ‘대중성’과 ‘예술성’의 경계에 서서 두 가지 코드가 혼입되는 장르로 가시화되는 것이다. 미국 영화와 관련한 박인환의 인식 변화를 통해 보면 두 시기에 걸쳐 발표된 상이한 내용의 글은 ‘미국’과 ‘영화’에 대한 태도 변화는 물론 ‘대중성’과 ‘예술성’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증례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재래의 영화관과 예술관은 새로운 영화관과 예술관으로 변이하는 양상을 보인다.

3. 비판과 매혹의 대상으로서의 아메리카: 예술적 텍스트로서의 시

우리는 앞서 영화 평론을 포함한 산문 속에서 미국에 대한 박인환의 태

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박인환은 산문 속에서 미국을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이자 선망과 긍정의 대상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인식이 가닿는 지점에 ‘대중’과 ‘대중적 글쓰기’의 문제가 놓여 있다. 해방기와 1950년대 미국에 대한 박인환의 평가를 통해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이해하게 된다. 그는 1950년대가 되면 전통과 지적 예술성을 중시하던 해방기의 태도에서 새로움과 오락적이고 대중적인 요소가 가미된 예술성을 중시하는 태도로 변화한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대중성과 예술성이 박인환의 내면 속에서 어떻게 대립하고 혼화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례라 할 수 있다. 어쨌든 그의 산문들에서 1950년대 미국은 대체로 긍정적 대상으로 비춰진다. 이에 비해 미국 기행 관련 시편들은 그 양상을 달리한다. 미국 기행 시편들에서 박인환은 비애와 불안, 혼란과 우울, 문명 비판과 방향 부재의 문제들을 주로 다루면서 미국 문명에 대한 불편한 심기와 그 불모성에 천착한다. 우리는 산문과 시의 이러한 낙차가 생겨난 배경을 미국 관련 시편과 산문을 고찰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주관이 명백하고 유행에서 초탈한 시, 공통된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여 주는 시, 이러한 시만이 거부할 수 없는 조선의 현대 시일 것이다.

- 『시단 시평』(『신시론』, 1948. 4)

시를 쓴다는 것은 내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이었다. 나는 지도자도 아니며 정치가도 아닌 것을 잘 알면서 사회와 싸웠다. (중략) 나의 시의 모든 작용도 이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로 변화하였으나 본질적인 시에 대한 정조와 신념만을 무척 지켜 온 것으로 생각한다.

- 『『선시집』 후기』(『선시집』, 산호장, 1955. 10)

그럼 영화에 있어서 현대적 감각이란 무엇이나? 몇 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먼저 그것은 현대의 인간이 지니고 있는 착잡한 사고나 심리의 표현이고 불안과 공포의 허덕이는 사회와 그 심상 풍경을 영화가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는데 있는 것이다. (중략) 필요한 것은 관객의 작품을 보는 감각성이며 영화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시나 회화에 있어서도 동일한 일이다.

- 『현대 영화의 감각-착잡한 사고와 심리 묘사를 중심으로』
(『국제신보』, 1956. 1. 27)

박인환의 시관이 잘 드러난 글들이다. 이 글들을 정리해 보면, 박인환이 생각하는 본질적 시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서 당대의 공통된 감정을 파악한 주관이 명백한 시, 신념을 가지고 현실의 부정성과 맞서 싸우는 시, 현대인의 착잡한 사고나 심리를 표현하고 불안과 공포의 허덕이는 사회와 그 심상 풍경을 묘사하는 현대적 감각을 갖춘 시라 할 수 있다. 해방기에 언급한 ‘명백한 주관’과 ‘당대의 공통된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사실 1950년대에 언급한 ‘신념’과 ‘현대인의 불안과 공포의 심상을 드러내는 일’과 상호 배치되지 않고 호응한다는 점에서, 해방기나 1950년대 그의 시관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현실의 부정성과 지속적으로 싸움을 벌이는 언어적 행위로서의 시쓰기가 바로 박인환이 생각했던 본질적 시쓰기의 방향이었던 셈이다.

대낮보다도 눈부신
포틀랜드의 밤거리엔
단조로운 글렌 밀러의 랩소디가 들린다.
쇼윈도에서 울고 있는 마네킹.

앞으로 남지 않은 나의 잠시를 위하여
기념이라고 진피즈를 마시면
녹슨 가슴과 뇌수에 차디찬 비가 내린다.

나는 돌아가도 친구들에게 얘기할 것이 없구나
 유리로 만든 인간의 묘지와
 벽돌과 콘크리트 속에 있던
 도시의 계곡에서
 흐느껴 울었다는 것 외에는…….

천사처럼
 나를 매혹시키는 허영의 네온.
 너에게는 안구(眼球)가 없고 정서(情緒)가 없다.
 여기선 인간이 생명을 노래하지 않고
 침울한 상념만이 나를 구한다.

바람에 날려온 먼지와 같이
 이 이국의 땅에선 나는 하나의 미생물이다.
 아니 나는 바람에 날려와
 새벽 한 시 기묘한 의식으로
 그래도 좋았던
 부식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포틀랜드에서)

- 「새벽 한 시의 시」 전문

미국 기행 관련 시편들에서 박인환은 미국 문명이 지닌 불모성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망과 환상의 문제에 주목한다. 그는 이 시기 시편들을 통해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비애와 향수, 자기정체성의 문제 등을 주로 다루게 된다. 그것은 미국 문명과 그 속에 놓인 자아에 대한 비판적이고 성찰적 목소리에 의해 행해진다. 「새벽 한 시의 시」에는 이러한 특징들

이 잘 드러나 있다.

‘네온’이 발하는 빛의 밝음은 화려하고 매혹적이다. 하지만 화자가 보는 것은 그 화려하고 매혹적인 것 이면에 도사린 환영으로서의 문명의 속성이다. 화자는 그 속에서 생명(력)이 소거된 비인간적인 문명의 속성을 읽어낸다. 문명은 인간을 소외시키고, 죽음의 장으로 화하며 우울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화자는 ‘유리로 만든 묘지’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도시’, ‘쇼윈도에서 울고 있는 마네킹’ 등 인공의 이미지를 통해 문명이 지닌 비인간적인 불모성을 부각시킨다.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 미국 문명이 지닌 비인간적 불모성과 그런 문명이면에 도사린 거짓된 환상, 그리고 이를 통해 갖게 되는 화자의 비애의 감정이 이 시를 이루고 있는 핵심적 기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에서 이러한 측면 외에도 또 다른 심리 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사처럼 나를 매혹’시키는 문명이 바로 화자의 심리를 뒤흔드는 것이다. ‘나를 매혹시키는 허영의 네온’이라고 말할 때의 자아가 문명에 대한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자아에 가까이 가 있다면, ‘천사처럼 나를 매혹시킨다’라고 말할 때의 자아는 비판과 성찰 이전의 자아 즉 그것을 선망하거나 그것에 사로잡힌 자아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문명의 매혹적인 얼굴에 이미 사로잡힌 자이다.

그러므로 이 시의 화자는 매혹의 감정에 이끌리면서도 비판을 행하는 이중적 존재라 할 수 있다. ‘바람에 날려온 먼지와 같이/이 이국의 땅에선 나는 하나의 미생물’이라는 구절이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이러한 화자의 이중적 상태를 떠올릴 때 가능해진다. 자아 자신을 먼지와 미생물이라고 비하하는 것은 미국 문명이 지닌 부정성을 강조할 때보다는 미국 문명이 지닌 우월성을 의식하는 지점에서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¹⁵⁾ 후진적 상태에 머물러 있던 한국과 그곳으로부터 온 한국인이 지니는 일종의

콤플렉스가 시 속에 미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비판적으로만 바라보던 해방기 시들과 달리, 이 시기의 시들은 분명 미국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미국을 선망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시를 다시 1950년대 이후 박인환의 미국 관련 산문과 중첩시켜 보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인환은 산문 속에서 분명 미국 문명에 대한 선망의식과 매혹의 감정을 드러냈다. 박인환은 시의 본질적 속성이 비판정신에 있다고 믿었고, 이를 지키려 노력한 흔적을 시 속에 남겨놓았다. 이 시는 이러한 흔적을 반영한다. 미국 문명에 대한 비판의식이 이 시를 가로지르고 있다. 하지만 소거된 듯 보이던 미국 문명에 대한 선망의식과 매혹의 감정은 사실 사라지지 않은 채 시를 관통한다. 자신의 이중성을 확인하는 순간 자기 환멸의 감정이 솟아올라오게 된다. 그러므로 화자는 이중의 상태에 처해 있다. 비판하면서도 매혹에 빠져 있고, 성찰하면서도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환멸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불모의 문명이 지닌 미래의 불구성, 인간성 상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화자는 이러한 자기 환멸적이고 이중적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애와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

STRAIT OF JUAN DE FUCA를 어제 나는
지났다.

눈동자에 바람이 휘도는
이국의 항구 올림피아
피를 토하며 잠자지 못하던 사람들이
행복이나 기다리는 듯이 거리에 나간다.

착각이 만든 네온의 거리

15) 한명희, 앞의 글, p.484. 한명희는 이 시에서 중요한 것은 문명 비판이라기보다 미국이 주는 매혹과 자신의 왜소함 사이의 갈등이라고 보았다.

원색과 혈관은 내 눈엔 보이지 않는다.
 거품에 넘치는 술을 마시고
 정욕에 불타는 여자를 보아야 한다.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무거운 침묵 속으로 나는
 발버둥치며 달아나야 한다.

세상은 좋았다
 피의 비가 내리고
 주검의 재가 날리는 태평양을 건너서
 다시 올 수 없는 사람은 떠나야 한다
 아니 세상은 불행하다고 나는 하늘에
 고함친다
 몸에서
 베고니아처럼 화끈거리는 욕망을 위해
 거짓과 진실을 마음대로 써야 한다.

젊음과 그가 가지는 기적은
 내 허리에 비애의 그림자를 던졌고
 도시의 계곡 사이를 달음박질치는
 욕중한 바람을
 충혈된 눈동자는 바라다보고 있었다.

(올림피아에서)

- 「충혈된 눈동자」 전문

15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처음으로 미국에 도착했을 때의 심경을 노래한
 이 시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 『새벽 한 시의 시』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

다. 행복이라는 환상을 충족시켜 주리라 믿었던 미국이란 땅이 사실은 불행과 비애로 가득한 비애의 땅일 수 있음을 미국에 도착한 화자는 직관적으로 인식한다. ‘착각이 만든 네온의 거리’와 ‘거품이 넘치는 술’, 그리고 ‘정욕에 불타는 여자’의 이미지 등은 이러한 직관을 강화시키는 매개물이 된다. 미국은 ‘원색과 혈관’이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 소거된 땅이며, ‘내 허리에 비애의 그림자를 던지는’ 욕망의 땅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미국에 대한 화자의 환상은 이 지점에서 깨진다.

그런데 곧 그러한 정서만이 이 시의 중심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게 증명된다. ‘거품에 넘치는 술을 마시고/정욕에 불타는 여자를 보아야 한다’는 진술문 속에서 우리는 화자의 또 다른 내면을 읽을 수 있다. 위의 진술문에서 우리는 화자의 내면이 일관된 상태가 아님을, 미묘한 어긋남의 상태에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 진술문에는 미국이 욕망으로 가득 찬 땅임을 확인해야 한다는 자기 의지적 언술과 그 욕망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욕망에 스스로 사로잡혀야 한다는 언술이 뒤섞여 있다. 이 문장은 그러므로 욕망을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욕망을 소비하는 자의 목소리, 즉 화자의 이중적 목소리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키는/무거운 침묵 속으로 나는/발버둥치며 달아나야 한다’는 진술문 또한 그 욕망의 실체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자아의 이중적 심상을 담고 있다. ‘~속으로 달아나야 한다’는 구절은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와 ‘그것에서 달아나야 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욕망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와 ‘욕망에 이끌리고 있다, 그러므로 달아나야 한다’는 상이한 태도가 하나의 문장 속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마지막 연에서도 욕망의 도시를 부정하는 자아의 의식적 측면과 욕망에 사로잡힌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 자아의 피로감이 동시에 표출되어 있다. ‘충혈된 눈

동자'의 어려움과 머뭇거림은 거기에서 비롯한다.

당신은 일본인이지요?
차이니스? 하고 물을 때
나는 불쾌하고 웃었다
거품이 많은 술을 마시면서
나도 물었다
당신은 아메리카 시민입니까?
나는 거짓말 같은 낡아 빠진 역사와
우리 민족과 말이 단일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했다.
황혼.
태번 구석에서 흑인은 구두를 닦고
거리의 소년이 즐겁게 담배를 피우고 있다.

여우(女優) 가르보의 전기(傳記) 책이 놓여 있고
그 옆에는 디텍티브 스토리가 쌓여 있는
서점의 쇼윈도
손님이 많은 가게 안을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비가 내린다.
내 모자 위에 중량이 없는 억압이 있다.
그래서 뒷길을 걸으며
서울로 빨리 가고 싶다고
센티멘털한 소리를 한다.

(에버렛에서)

- 「어느 날의 시가 되지 않는 시」 전문

화자의 미국에 대한 이중적 태도는 이 시의 반어적 표현들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화자는 술집에서 자신의 국적을 묻는 미국인을 만난다. 그 미국인은 동양인이 모두 일본인이거나 중국인으로 보이는지, 화자에게 일본에서 왔는지 혹은 중국에서 왔는지를 묻는다. 이에 대해 화자는 자신이 단일한 민족과 단일한 말을 가진 한국에서 왔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런데 그 대답 속에서 우리는 화자의 자조적인 음성을 듣게 된다. ‘거짓말 같은 낯아빠진 역사’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화자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화자 내면의 아이러니한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마치 유구한 전통을 가진 것처럼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 전통이 지닌 부정성을 화자는 동시에 직관한다. 이러한 반어는 이후 구절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거리의 소년이 담배를 즐겁게 피우는 모습, 여배우의 전기 책과 탐정 소설을 사기 위해 서점 안을 서성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화자에게 어쩐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풍경은 화자에게 또 다른 사실을 환기시킨다. 화자의 눈에 비친 한국인은 유구한 전통을 가졌으면서도 반복되는 비극적 역사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지닌 존재들인 반면, 미국인은 유구한 전통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어떤 고민도 없이 여유롭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하는 존재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재차 확인하고 싶지 않으므로 화자는 굳이 서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화자가 자신의 모자 위에 ‘중량이 없는 억압’이 있다고 말하며, 그래서 자신의 고향 ‘서울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후진적 현실과 그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아프게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독백을 ‘센티멘털한 소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거룩한 자유의 이름으로 알려진 토지
 무성한 삼림이 있고
 비렴계관(飛廉桂冠)과 같은 집이
 연이어 있는 아메리카의 도시
 시애틀의 네온이 붉은 거리를
 실신한 나는 간다
 아니 나는 더욱 선명한 정신으로
 태번에 들어가 향수를 본다.
 이지러진 회상
 불멸의 고독
 구두에 남은 한국의 진흙과
 상표도 없는 ‘공작(孔雀)’의 연기
 그것은 나의 자랑이다
 나의 외로움이다.

또 밤거리
 거리의 음료를 마시는
 포틀랜드의 이방인
 저기
 가는 사람은 나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포틀랜드에서)

- 「여행」 부분

이 시에서는 미국에 대한 부정정보다는 긍정과 선망의 시선이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미국의 화려한 문명을 대면하고 있는 화자는 ‘실신한 나’로 표현된다. ‘나’를 실신하게 만드는 것은 한국의 후진적 현실과 확연하게 대비되는 미국의 화려한 모습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식인으로서 한국의

후진적 현실을 아프게 확인하면서 어떠한 해결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는 고통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의 도시를 배회하는 이방인으로서 화자는 혼란스런 내적 고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향수에 젖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그 향수의 땅인 고국에는 후진적 현실만이 화자를 기다리고 있다. 진흙과 상표도 없는 담배의 연기가 자신의 자랑이고 외로움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화자의 슬픔과 비애의 감정과 만나게 된다. 자랑이며 외로움이라는 표현은 그러므로 반어적이고 자조적인 냄새를 풍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그는 이국의 땅, 미국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다리 위의 사람』에서 화자는 민족에 대한 애증의 심사와 지식인으로서 갖게 되는 알 수 없는 부채감을 표출한다. 다리 위에서 그가 느끼는 것은 혼란과 새로운 불안이다. 미국이라는 타자를 통해 그는 처량한 한국의 현실을 새삼 깨달으며 자기 존재와 한국의 현실을 아프게 확인한다. 그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요원하며 방향은 혼란스럽다. 그것은 또한 지식인으로서의 화자에게 부채의식을 지우며 화자를 괴롭힌다. 미국이라는 타자는 그렇게 화자에게 한국과 한국인으로서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된다.

박인환은 일면 진정한 시인, 진정한 예술인으로서 현대의 부정적 일면을 자각하고 표현해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자신 아이러니하게도 그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중적이고 분열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과정에서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변화의 변곡점에 서게 된다. 자신이 이러한 이중적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이후, 박인환의 문학은 통속성을 부정하고 예술성만을 강조하던 태도¹⁶⁾에서 벗어나, 예술성과 통속성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나아가 부정의 대상이던 통속성이 새로운 문학의

가능성으로 자리할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미국적 환상을 비판하는 자아와 미국적 환상에 사로잡힌 환멸적 자이는 예술성과 통속성의 일면을 간직한다. 이러한 통속성은 대중성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미국 문명에 대해 매혹을 느끼고, 미국 영화의 오락적 요소에만 흥미를 보이는 대중들을 박인환은 일면 통속적이라고 매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통속성이 현대성의 일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각하는 순간, 그는 통속성이 예술성의 한 영역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본 듯하다.¹⁷⁾ 박인환이 미국에 대한 자기 체험이 이중적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순간, 그의 시는 새로운 변전 속으로 옮겨가게 된다. 미국이라는 타자는 그러므로 자아의 세계관과 예술관, 내지는 문학관을 새롭게 조명하게 되는 거울로서의 이중적 존재가 된다. 반어와 역설은 이러한 지점에서 박인환의 시의 침점이 된다.

박인환의 내면에서 예술성과 대중성은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박인환의 내면은 자신의 이중성을 확인하며 모순을 경험한다. 그 경계에서 우리는 박인환의 자기 환멸과 만나기도 하

16) 박인환은 그의 산문 속에서 통속성을 다음과 같이 바라보고 있다. 그는 미국 영화의 오락성을 비판하는 자리에서 오락성이 통속성과 통한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생각해 온 단순한 아메리카니즘도 아닌 면에 비통속적인 예술도 있는 한편 관객의 신념을 쉽사리 부수게 하는 오락도 있는 것을 우리는 날카롭게 판단하지 않으면 못쓴다.”(『아메리카 영화 시론』, 『신천지』, 1948. 1) 또한 그는 「1954년의 한국 시」라는 글에서 김춘수의 「인인(隣人)」과 구상의 시에 대해 통속적이라고 비판한다. 김춘수의 시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이 시인이 생각하고 있다면 자칫 통속성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구상의 시에 대해 “형식이 유치한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지 하나 더욱 눈에 걸리는 것은 “해방”과 “불(弗)”의 대조는 너무 통속적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의 통속성은 익숙한 표현과 상념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동반한다.

17) 박인환은 삶이 지나는 어쩔 수 없는 통속성을 그는 「목마와 숙녀」의 한 구절로 남겨 놓는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목마와 숙녀』, 『시작』, 1955. 10)

고 허무와 만나기도 한다. 세계가 환멸이듯이, 부정하고 비판하던 것들에 매혹된 환멸적 자이를 확인하는 박인환은 그 자신이 환멸임을 미국이란 이국에서 체험한다. 그렇다면 분명 미국은 박인환에게 있어 자기 처형을 확인하게 하는 땅이다. 저버리지 못할 매혹이 있고, 그 매혹을 떨쳐버려야 하는 극도의 부정을 낳는 곳. 그곳에서 박인환은 자신을 발견한다. 인간의 본질을 새삼스럽게 강렬하게 보았던 곳, 박인환에게 있어 미국은 그런 땅이다.

Ⅲ. 대중성과 예술성의 경계와 접점

박인환 문학에서 미국이란 타자적 존재에 대한 글쓰기는 그의 세계관과 문학관, 예술관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준거로 자리한다. 그의 문학에서 미국은 시기에 따라 혹은 장르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드러난다. 특히 1950년대 미국에 대한 거리감각을 통해 그의 문학적 내면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해 보면, 미국이 그의 문학에 있어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알 수 있다. 이 글은 그의 시와 산문 속에 드러난 미국에 대한 인식이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러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배경과 원인,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1950년대 미국 기행문들과 미국 영화 비평 속에서, 박인환은 미국의 선진 문명, 체제 등에 호의와 선망의 시선을 보낸다. 그의 산문은 분명 미국에 대한 비판과 선망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던 시와는 다른 차원으로 전개된다. 미국 기행 관련 시편이 욕망과 환상, 그리고 소외로 점철된 미국 문명의 불모성에 집중되어 있다면, 미국 관련 산문은 선망과 매혹의 감정을 포함한 자기 환멸의 감정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에 대한 태도가 그의

산문과 시에서 다르게 표현되었던 것은 미국이란 타자를 통해 변화하는 세계상과 자아상이 의식 혹은 무의식적으로 반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인환의 산문이 지닌 대중적 글쓰기의 방향과 시가 지닌 예술적 글쓰기의 방향은 전혀 다른 지점에서 형성되고 서로 독립적으로 서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두 글쓰기는 서로를 의식하는 가운데 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박인환은 이러한 두 방향의 글쓰기의 분열적 징후와 해후의 가능성을 시 속에 남겨놓았다. 박인환은 시의 본질적 신념을 변화시키지 않고 유지하려 했지만, 현대성의 특징적 국면들-대중성과 통속성-이 그의 신념 속으로 스며드는 것에 대해 의지의 차원에서 제어할 수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미국이란 타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었던 것은 이러한 변화의 징후를 말해준다.

특히 미국 기행 이후 후진적 한국 현실과 한국인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미국이란 타자를 통해 재확인하면서, 혹은 미국이란 타자에 이끌리면서, 욕망하고 선망하는 자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박인환은 방향감을 상실하고 자기 환멸감에 시달린다. 미국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는 진정한 문학과 예술의 자리를 고민하면서도, 후진적 한국의 현실과 그 속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던 지식인으로서의 자아 정체성 문제를 시를 통해 드러낸다. 또한 이러한 내면 풍경이 시를 통해 발현되는 가운데, 그는 통속성과 대중성의 문제가 현대의 속성임을 의식·무의식적으로 깨닫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어쩌면 현대 문학이 지닌 운명일지 모른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는 박인환의 본질적 시에 대한 믿음의 균열과 현대시의 분열적 징후를 동시에 읽을 수 있다. 그것은 전통과 새로움, 대중성과 예술성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던 혹은 그 경계와 접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1950년대 지식인의 자화상과 당대의 문학적 고민을 그대로 드러내는 징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박인환, 『박인환 전집』, 맹문재 엮음, 실천문학사, 2008.
- 강계숙, 「‘불안’의 정동, 진리, 시대성: 박인환 시의 새로운 이해」, 『현대문학의 연구』 제51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10, pp.457-463.
- 김은철, 「박인환 시의 현실과 시적 대응」, 『한민족어문학』 제47집, 한민족어문학회, 2005. 12, pp.280., p.306.
- 김정남, 「박인환 시의 모더니티와 시사적 의미」, 『어문론집』 제48집, 중앙어문학회, 2011. 11, pp.346-348.
- 박연희, 「박인환의 미국 서부 기행과 아메리카니즘」, 『한국어문학연구』 제59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2. 8, pp.158-164.
- _____, 「박인환과 영화」, 『한국문학연구』 45집,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2013. 12, p.320.
- 방민호, 「박인환 산문에 나타난 미국」,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9집, 한국현대문학회, 2006. 6.
- 오문석, 「박인환의 산문정신」, 『박인환 깊이 읽기』, 맹문재 편, 2006, pp.75-78.
- 이선미, 「‘미국’을 소비하는 대도시와 미국영화」, 『상허학보』 18집, 상허학회, 2006. 10, pp.76-77.
- 임종명,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 미국기행문의 미국 표상과 대한민족의 구성」, 『사충』 67, 역사학연구회, 2008. 9, pp.88-93.
- 한명희, 「박인환 시 『아메리카 시초』에 대하여」, 『어문학』 제85집, 한국어문학회, 2004. 9, pp.473-485.

Abstract

A research on dual attitude toward America
in Park In-Hwan's literature

- Focused on the poetry and prose in the 1950s -

Ju, Yeong-Jung

This article focused on dual attitude towards America revealed in Park In-Hwan's poetry and prose, and looked at the background and the cause and meaning which a difference of such recognition be occurred. America as others in his literature is one of the central subject to make his literary identity and self-identity. What to look for a dual perception and representation of America in Park In-Hwan's literature i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read the views of his world and literature, art not only in reading his attitude toward America.

Park In-Hwan sends the eye of favor with envy for such advanced civilization and framework through travelogue about America and American film criticism written in the 1950s. Poetry and prose are associated with the American Journey was with a significant difference. Unlike prose Poetry reveal desires and fantasies, the alienation of American civilization ruins and the points of his disillusionment, including feelings of envy and fascination. Direction of the public writing in prose and the artistic writing in poetry seems to be made at different points standing independently of each other, in fact, two writing has to be aware of each other. facing each other. Park In-Hwan is left behind of the possibility of encounter and divisive signs of writing of these two directions in his poetry.

Looking at his desires being led to America, or reaffirming backward reality of Korea and identity as Korean through America, Park In-Hwan suffer from feelings of his disillusionment losing sense of direction. Among these inner landscape is expressed through poetry, he seems to have realized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that a matter of popularity was the modern property. We can read the divisive signs of the modern poetry and crack about the nature beliefs of poetry through this phenomenon. It can be token which reveal self-portraits of the 1950s intellectuals and the contemporary literary concerns, which should worry between traditional and novelty, popularity and artistry or had to be conscious of that boundary or contact.

Key Word : Park In-Hwan, tour of America, duplicity, popularity, self disillusionment, criticism, self-identity, fantasy.

주영중

소속 : 대구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창조융합학부 조교수

주소 : (712-71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전화번호 : 010-3160-0946

전자우편 : whitebirch68@hanmail.net

이 논문은 2015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5년 3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4월 10일 게재 확정됨.
--